

네이버, 대학생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2년 연속 1위...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 높이 평가... 선호 그룹사 1위는 'CJ'



네이버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2년 연속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다.

네이버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2년 연속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다. 네이버는 서비스 접촉 빈도가 높고, 모바일 메시지 '라인'의 미국·일본 동시 상장 등으로 글로벌 기업 이미지를 더하고 있는 것이 젊은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7일 발표한 '2016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명단에서 네이버는 10%의 득표율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전체 1순위에 올랐다.

올해 13년째인 이 설문조사는 인크루트의 대학생 회원 1375명·1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관심 업종'이란 이유로 1위에 올랐지만 올해에는 라인 성장 등의 이유로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을 높이 평가받았다.

네이버에 이어 ▲CJ제일제당(4.5%) ▲아모레퍼시픽(4.3%) ▲삼성전자(3.7%) ▲국민건강보험공단(3.6%)이 톱5에 올랐다. CJ제일제당은 '동종업계 및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 이미지가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은 '관심분야다'란 평을 많이 받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인크루트가 설문 조사를 시작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속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를 차지했으나 2014년 2위, 2015년 6위까지 떨어졌다 올해 4위로 반등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한국전력공사(3.2%) ▲국민연금공단(2.7%) ▲현대자동차(2.5%) ▲아시아나항공(2.4%) ▲대한항공(2.0%)이었다.

대학생이 가고 싶은 기업 상위 10위에 공기업이 3곳에 달하고 있다. 인크루트는 "지속되는 고용 불안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려는 대학생들이 늘었다"며 "공기업 중 최고 인지도를 자랑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상위 10위에 재진입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했다.

◇ IT서비스 기업 약진

네이버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양대 그룹사를 제치고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오른 것은 높아지는 IT기업의 위상을 보여준 사례다. 네이버는 인크루트 설문에서 2010년 처음으로 취업하고 싶은 기업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이래 7년 연속 순위권에 들고 있다. 네이버는 꾸준히 순위를 높이며 지난해 1위를 차지하고 올해에도 최

고 타이틀을 지켰다.

한편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 조사에서는 CJ그룹이 득표율 22.7%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20.7% 지지로 2위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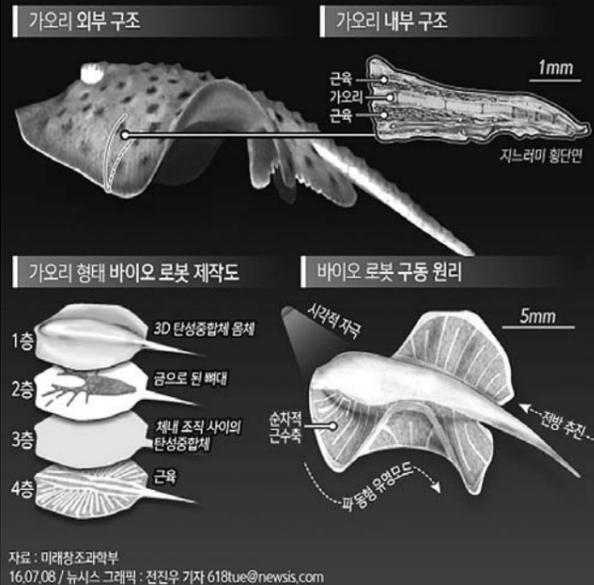
선호 그룹사 3위부터 10위까지는 ▲LG(10.4%) ▲신세계(9.3%) ▲현대자동차(8.1%) ▲SK(7.6%) ▲농협(5.9%) ▲포스코(5.3%) ▲현대(5.1%) ▲금호아시아나(5.0%) 순이었다.

김대선 인크루트 팀장은 "CJ는 '문화를 만드는 기업'을 표방하는데 콘텐츠를 자주 소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와닿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생 타겟으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 기업들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의미있는 설문"이라고 평했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공기업과 대기업 선호 현상은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IT서비스 기업에 대한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네이버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기업문화가 1위 요인인데 오늘날 대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전기없이 생체조직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로봇 개발'



국내 연구진,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 개발

서강-하버드 연구진, 생체조직-무기물 결합 전기없이 움직여

생체조직과 무기물의 결합으로 전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바이오 로봇)을 국내 연구진이 해외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서강-하버드 질병 바이오리더연구센터 국제 공동연구진(최정우 서강대 교수-케빈 킷 퍼커 하버드대 교수·박성진 하버드대 박사 연구팀)이 바이오 로봇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8일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퍼커 교수가 교신 저자, 박 박사가 제1저자, 최 교수가 공동저자다. 바이오로봇은 세포, 조직 등으로 이

뤄진 생체물질 부분과 무기물로 구성된 기계적인 부분이 결합된 로봇이다. 세포 조직으로 구성돼 유영이 가능한 바이오 로봇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이 바이오 로봇은 생체세포와 무기물이 결합한 가오리 형태 로봇으로 동력기관 없이 물속 유영이 가능하다. 빛의 자극에 반응하도록 조작한 세포를 로봇의 뼈대에 근육조직으로 배열하고 근육이 빛의 빈도 등에 따라 수축·이완하게 함으로써 로봇이 움직이는 원리다.

배양세포로는 쥐의 심근세포를 이용했다. 바이오 로봇의 근육구조와 물속에서 유영하는 움직임은 실제 가오리와도 유사하다. /안진수 기자

단통법 사실조사 거부 과태료 기준 보완키로

방통위, 방해·기피 등 행태별로 세분화되지 못해 제재효과 미흡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유용구조개선법(단통법)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영업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단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지난해 초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과 임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개별기준에 따르면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이상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거부·방해·기피 등 행태별로 세분화되지 못하고 위반의 정도와 동기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해 제재효과가 미비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일 반기준을 준용해 과태료를 종과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규주 상임위원은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 등 행태별 구분이 없고 금액도 똑같다"며 "유사한 행위(사실조

사 거부)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부·방해·기피 각각 행태에 대해 차등을 주는 등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사실조사 거부방해가 지난해 SK텔레콤에서도 분사차원에서 일어났고 LG유플러스에서도 분사차원에서 일어났다.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언론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제재효과가 있겠느냐고 비판할 것"이라며 "분사와 일선 판매점·대리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급입법을 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시행령을 개

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석진 위원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똑같은 액수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미진하다. 가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삼석 위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제재의 적절성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 한계로 일정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판매점·대리점 과태료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당사자에 따라 차등이 되게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노의 방통위 이용자정책책임자는 "위반행위 자체에는 가중을 해왔지만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 시는 가중없이 횟수 기준에 따라 해 왔다"며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진수 기자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전년비 73% ↑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5300명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 출시 이후 상반기 가입자 최대치로 지난해 1년 주택연금 가입자 6486명의 82%에 육박하는 숫자다.

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는 531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가입자(3,063명)보다 73.4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가입자를 살펴보면 ▲2012년 2379명 ▲2013년 2567명

▲2014년 2472명 ▲2015년 3065명 ▲2016년 5317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같은 기간 비수도권 가입자는 ▲2012년 548명 ▲2013년 696명 ▲2014년 743명 ▲2015년 925명 ▲2016년 1759명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 가입자는 전년 동기 보다 90% 이상 급증했다.

공사는 내집연금 3종세트로 가입 요건을 완화해 비수도권 가입자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안진수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